濟州大 農業硏 11 67~84(1994) Subtrop. Agric. Cheju Nat. Univ. 11 67~84(1994)

柑橘의 産地流通體系에 관한 硏究*

姜景璿 · 姜東一

A Study on Marketing System of Citrus in Cheju-island*

Kang, Kyung-sun · Kang, Dong-il

Summary

The overall on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citrus marketing system in Cheju island. For this objective, the following sub-objective are analyzed in this paper : 1) actual conditions of the citrus marketing structure, 2) farmers' opnions, and 3) the marketing policies of Ch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citrus surplus problem has emerged seriously since 1989 in Cheju island. In additon to the citrus surplus, import liberalization of citrus will affect to the citrus industry. That is, the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itrus indutry has been changed rapidlly.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nges, the local government,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farmers have to reorganize not only the production structure but also the marketing system of citrus growing district.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itrus marketing system accomplished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assemblers which are private merchandisers as the citrus marketing system controlled only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 이 연구는 1993년 제주대학교 자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Ⅰ. 序

'69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정 육성되기 시작한 감귤농업은 '91년 현재 도민 총생산액의 약 20%, 농업소득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주지역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했다. '70년도에 0.5만M/T에 불과했던 생산량이 '92년에는 70여만M/T으로 무려 140여배나 증가했고, 재배면적도 4.3배나 증가하였다. 전국 과실 총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등 말 그대로 이 2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제주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의 감귤산업을 둘러 싼 환경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개편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동안 끌어오던 UR의 타결로 감귤도 '95년도 1.5만M/T의 수입을 시작으로 하여 '9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97년부터는 관세만 지불하면 누구든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의 감귤산업을 둘러 싸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던 여러 보호 조치들이 해제되어 말 그대로 격렬한 국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제주의 감귤산업의 내부적 현황을 살펴보면 이런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성적인 해거리 현상(과잉과 부족의 반복), 영세한 경영규모(2ha 미만 농가의 95%), 분산적인 감귤원,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뿐만 아니라 다원화된 유통체계 등 생산구조와 유통구조 상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감귤산업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지방 정부는 물론 농협, 농민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누구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감귤의 유통구조의 개편문제는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방향을 만들고, 이 대응방향에 의거하여 유통구조의 개편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주감귤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중 특히 유통구조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柑橘의 産地流通體系와 그 問題點

1. 감귤농업의 환경변화와 유통체계

제주의 감귤농업은 '70년대 이래 경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소비의 확대로 순조롭게 발전하였고, 꾸준한 재배면적의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꾸준한 소비의 확대는 생산구조와 유통구조의 내부모순에도 불구하고 감귤산업을 양적으로 발전시키는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재배기술의 개발을 통한 앙산과 재배면적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배면적 2만1천여 ha, 생산량 70여만톤, 재배농가 2만6천여호로 급격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89년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감귤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구조와 유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즉 지금까지 내재하고 있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상의 문제들이 '89년의 과잉생산을 계기로 표면화한 것

이다. 영세한 재배면적,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분산된 감귤원지, 양산위주의 기술체계 등 생산구조와 다원적이며 복잡한 유통구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성장하던 감귤농업이 '89년의 과잉생산으로 한꺼번에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 1〉 감귤생산 추세

구 분	'70	'80	'90	91	'92	'93
면적(ha)	5,002	14,095	19,414	19,605	21,727	21,479
생산량(천M/T)	5	187	493	556	719	619
농가수(호)	17,051	19,906	25,616	25,818	26,541	26,571
조수입(억원)	10	545	3,151	4,251	2,623	

자료) 柑橘輸入開放對策(案), 濟州道, 1994.

더구나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UR 협상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떻든 타결되었고, '95년부터는 WTO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싫든 좋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오렌지의 경우 '95년부터 '97년 6월까지 정해진 수입쿼터량('95년 1.5만M/T을 기준으로 하여 '97년에는 2.5만M/T을 수입)을 50%의 관세를 물려 수입하기로 하였고, '97년 7월 1일부터는 수입쿼터량은 있지만 관세만 지불하면 수입은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감귤류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렌지 쥬스도 마찬가지로 '97년 6월까지는 쿼터량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는 자유화하게 되어 있다. 즉, '95년부터 제주의 감귤농업은 격렬한 국제경쟁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 경쟁에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의 감귤농업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감귤농업의 구조변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감귤농업의 생산구조뿐만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감귤농업의 체계를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유통구조의 문제는 그 누구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문제는 그 농산물의 생산구조와 사회 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산구조와 사회 경제적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쉽게 고칠 수 없다.

감귤의 생산구조를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련시켜 감귤 유통구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는 감귤농업의 경영규모별 농가호수와 면적을 나타낸 것인데, 표

〈표 2〉 경영규모별 농가호수 및 면적('93년 현재)

구 분	계	0.5ha미만	0.5~1.0	1.0~2.0	2.0~3.0	3ha이상
호수(호)	26,571	13,257	7,342	4,681	900	373
	(100%)	(50.0)	(27.6)	(17.6)	(3.4)	(1.4)
면적(ha)	21,479	5,791	5,282	6,386	2,150	1,874
	(100)	(27.0)	(24.6)	(29.7)	(10.0)	(8.7)

자료) 柑橘輸入開放對策(案), 濟州道, 199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귤농가 2만6천호 중 50%인 1만3천호가 0.5ha미만이며, 0.5-1.0ha가 27.6%, 1-2ha이상이 17.6%, 2-3ha가 3.4%, 3ha 이상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농가의 95%가 2ha 미만이고, 3ha이상인 농가는 5%에도 못미치고 있다. 몇몇 기업적 대규모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귤농가는 극히 영세한 감귤원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영면적의 영세성은 감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협동화로 극복할 수 있지만, 감귤의 경우 협동출하의 정도는 아주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감귤농가에 대한 농협의 불충분한 조직 역량, 농협을 능가하는 상인들의 마아케팅 능력, 감귤생산자들의 인식부족, 감귤생산구조 상의 문제점(노동력 고령화 및 부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감귤생산자들(기업적 경영, 비농민의 부업적 경영, 감귤전업농, 부업적 농민경영)의 구성으로 인하여 감귤의 유통구조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협동출하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생산, 계획출하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감귤 산지유통체계의 특징

복잡하고 다원화된 감귤의 산지유통체계는 계획생산 및 계획출하를 통한 감귤의 안정적 생산 및 감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감귤의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주요 유통기관을 보면, 크게 농협계통과 상인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농협은 19개의 단위농협과 전문농협인 감귤협동조합으로 나누워져 독자적인 의사결정하에 감귤을 출하하고 있다. 여기에 상인조직이 감귤출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전체 감귤의 약 50-60%를 상인조직이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농협조직(19개 단위농협이 약 55% 정도이며, 나머지는 감협에 의해 출하되고 있음)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은 감귤의 용도별, 출하기관별 출하현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 우선 용도별로 보면 총 생산량의 15-25%가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생식용은 75-85%정도이다. 즉, 풍·흉작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극대과 및 극소과, 병해과 등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의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출하기관별로 보면, 가공용 감귤은 전량 농협계통을 통하여 출하되고 있다. 한편, 생식용 감귤의 출하기관별 출하 점유율(계통출하 : 상인출하)은 '87년 26% : 74%, '88년 24% : 76%, '89년 37% : 63%, '90년 28% : 72%, '91년 30% : 70%, '92년 44% : 56%, '93년 42% : 58%로, 생과용 감귤출하의 대부분이 상인조직에 의해 출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통출하량은 가공용 감귤을 포함하더라도 5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87년, '88년, '90년, '91년 등 생산량이 40여만M/T에서 50여만M/T으로 떨어지는 해에 상인조직에 의한 출하량이 70%수준으로 높았으며, 생산량이 많았던 '89년, '92년, '93년에는 60% 전후로 약 10% 가량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적으로 농협이 상인조직에 비해 마아케팅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량이 낮고 가격이 높은 시기에 상인조직에 의한 출하량이 높은 것은, 농협보다 상인들이 그 만큼 정보, 가격 등 시장대응력이 높아 감귤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등 각종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만큼 상인조직이 농협보다 마아케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89년 같이 극단적으로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폭락하거나 출하조건이 나빠지면, 상인들이 재빠르게 구매를 회피하거나, 출하능력이

한계로 생산자들은 농협으로 출하하게 되어 계통출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표 3〉 감귤출하 현황

(단위 : M/T, %)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용도별	합 계	464	413	746	493	556	719	619
		(110)	(100)	(100)	(100)	(100)	(100)	(100)
	생 식 용	373	330	550	354	434	529	521
		(80)	(80)	(74)	(72)	(78)	(74)	(84)
	가 공 용	78	64	173	116	77	136	69
		(17)	(16)	(23)	(24)	(14)	(19)	(11)
	기 타	13	19	24	23	46	54	29
		(3)	(4)	(3)	(4)	(8)	(7)	(5)
생식용	합계	373	330	550	354	434	529	52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통출하	98	79	201	100	132	]235	220
		(26)	(24)	(37)	(28)	(30)	(44)	(42)
	상인출하	275	251	349	254	302	294	301
		(74)	(76)	(63)	(72)	(70)	(56)	(58)
가공용을 포함한 계통출하량		176	143	374	216	205	371	289
		(38)	(35)	(50)	(44)	(37)	(52)	(47)

주) ( )의 수치는 구성비임.

자료) 각 년도판 감귤유통처리실태 분석,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한편 감귤의 지역별 출하실태를 보면 〈표 4〉와 같다. 이에 의하면 제주시 지역인 경우 수확량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계통출하량은 '88년 16.8%에서 '93년 35.7%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통출하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북제주군 지역인 경우는 해걸이 현상에 따른 계통출하량의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물량의 약 60%('90년산)가 계통출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림 및 애월지역은 생산량의 70-80%를 계통출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구좌를 제외한 한경과 조천 지역도 거의 50%를 계통출하하고 있어, 북제주군 지역의 밀감의 계통출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귀포 지역은 마찬가지로 수확량에 따라 변하고 있다. 하지만 계통출하비율은 20% 전후로 제주시 지역보다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 즉, 이 지역 밀감은 가공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인을 통하여 출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제주군 지역도 북제주군 지역에 비해 낮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총생산량의 29.2%('93년산)를 차지하는 남원지역의 계통출하비율은 수확량이 떨어지는 해에는 10% 이하, 수확량이 많은 해에는 15%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대정, 안덕, 표선, 성산 지역은 50-80%로 북군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통출하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총생산량의 56.2%('93년산)를 차지하는 서귀·남원 지역, 제주시 지역(총생산량의 10.8%), 나머지 지역(총생산량의 34%)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출하형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배의 역사가 가장 길고, 재배환경이 가장 좋은 서귀·남원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좋은 감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계통출하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오랜 기간 동안 개별출하,

〈표 4〉 지역별 계통 출하량의 추이

(단위 : M/T, %)

			'88	'89	'90	'91	'92	'93
제주시		A	36,350	79,050	49,800	61,200	74,070	66,920
		B	6,098	15,851	8,912	13,922	21,870	23,897
		B/N	(16.8)	(20.1)	(17.9)	(22.7)	(29.5)	(35.7)
서귀포시		A	158,063	229,480	145,200	151,800	194,800	167,800
		B	13,530	41,043	18,312	25,417	43,567	40,231
		B/A	(8.5)	(17.9)	(12.6)	(16.7)	(22.4)	(35.7)
북제주군	한림	A	9,571	15,316	10,583	12,458	15,405	15,730
		B	4,913	10,665	5,995	9,246	11,667	12,773
		B/A	(51.3)	(69.6)	(56.9)	(74.2)	(75.7)	(81.2)
	애월	A	18,496	39,820	25,434	31,356	38,803	44,770
		B	6,561	20,487	12,121	18,293	26,105	30,245
		B/A	(35.5)	(51.4)	(47.7)	(58.3)	(67.3)	(67.6)
	구좌	A	1,806	4,185	3,663	4,190	5,164	4,810
		B	228	1,094)	301	763	981	1,255
		B/A	(12.6)	(25.0)	(8.2)	(18.2)	(19.0)	(26.1)
	한경	A	9,110	15,694	11,839	14,127	17,136	18,470
		B	2,968	8,813	2,619	4,325	7,474	9,137
		B/A	(32.6)	(56.2)	(22.1)	(30.8)	(44.5)	(49.5)
	조천	A	16,700	47,255	29,826	35,359	44,352	43,590
		B	3,270	7,997	6,029	9,608	20,893	21,238
		B/A	(19.6)	(16.9)	(20.2)	(27.2)	(47.1)	(48.7)
	계	A	55,683	122,270	81,300	97,490	120,860	127,370
		B	17,940	48,999	27,262	42,262	67,283	74,648
		B/A	(32.2)	(40.1)	(33.3)	(43.4)	(55.7)	(58.6)

			'88	'89	'90	'91	'92	'93
남	대정	A	7,848	15,630	10,955	12,230	15,700	13,200
		B	2,745	8,267	3,866	4,437	8,543	7,541
		B/A	(35.0)	(52.6)	(35.3)	(36.3)	(54.4)	(57.1)
	안덕	A	11,352	21,880	15,653	17,020	22,110	18,830
		B	6,242	13,304	6,655	6,777	11,842	8,244
		B/A	(55.0)	(60.8)	(42.5)	(39.8)	(53.3)	(43.8)
제	남원	A	117,629	217,300	158,268	174,510	227,020	180,330
		B	16,230	36,502	13,817	16,037	34,371	33,205
		B/A	(13.8)	(26.8)	(8.7)	(9.2)	(15.1)	(18.4)
주	표선	A	14,099	31,286	10,601	17,700	27,200	17,900
		B	7,119	17,160	7,201	8,439	18,891	12,953
		B/A	(50.5)	(54.8)	(67.9)	(47.7)	(69.4)	(72.4)
	성산	A	11,636	29,504	20,931	24,400	36,940	26,650
		B	8,865	19,733	14,602	14,258	26,519	19,402
군		B/A	(76.2)	(66.9)	(69.8)	(58.4)	(71.8)	(72.8)
	계	A	162,564	315,600	216,400	245,860	328,970	256,910
		B	41,201	94,996	46,141	49,948	100,166	81,345
		B/A	(25.3)	(30.1)	(20.4)	(20.3)	(30.4)	(31.7)

주) A : 생산량 B : 계통출하량

자료) 각 년도판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상인출하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어 계통출하보다 상인출하를 더 선호하게 만들으며, 특히 다른 지역보다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계통출하보다 상인에게 출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런 생산자들의 의식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농협의 마아케팅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기타 지역은 재배의 역사도 짧고, 재배환경도 남원·서귀 지역에 비해 나빠 감귤 품질이 떨어진다. 그 결과 조건이 나쁜 상인출하보다 계통출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물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생산구조의 내부적 측면으로 보면 노동력의 고령화, 부족이 계통출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감귤의 산지유통은 크게 상인 출하와 계통출하로 나눌 수 있으며, 해거리 현상에 의한 변동은 있으나 상인출하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계통출하도 전문농협인 감귤협동조합과 19개의 지역별 단위농협의 개별적인 의사결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남원·서귀 지역, 제주시 지역, 기타 지역 순으로 계통출하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원적인 유통체계는 결국 계획생산은 물론 계획출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무역장벽이 있었던 경우에도 해걸이 현상으로 풍작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등 출하조절을 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이 위에 자유화가 된 지금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외국산 감귤류의 수입으로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여기에 쥬스의 수입으로 가공용 제주산 감귤류의 처리문제가 현안의 과제로 등장할 것은 불 보듯 명확한 것이다. 특히 이 가공용 밀감이 생과용 감귤시장으로 밀려들 경우 가득이나 외국산 감귤과의 경쟁으로 어려운 생과용 감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감귤의 생산구조뿐만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감귤의 산지유통체계의 문제점 및 이의 개편에 대해 생산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3. 생산농가의 의견[1]

생산농가들이 현재의 감귤산지유통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 〈표 5〉에서 〈표 12〉까지이다. 우선 현재 상인출하와 계통출하 중 생산자들이 어느쪽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 〈표 5〉인데, 상인출하 쪽이 약 70%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모르겠다"가 20%정도, 나머지 10%정도만 계통출하가 수익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생산농가의 약 95%가 감협 또는 단위 농협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계통출하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생산자가 농협의 마아케팅 능력을 그만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협의 계통출하에 대해 생산자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어 계통출하를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이에 의하면 우선 장점으로는 가공용 감귤이 판매 또

〈표 5〉 계통출하와 상인출하에 대한 농가의 선호도

* 문항 : 다음 중 편하고 수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계 통 출 하	상 인 출 하	직 접 출 하	모르겠다
의 귀 리	4	43	-	12
남 원 2 리	10	30	-	15
한 남 리	0	18	-	1
계	14	91	-	28
구 성 비(%)	10.5	68.4	-	21.1

1) 생산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계통출하가 가장 저조한 남원읍(남원 2리, 의귀리, 한남리)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농가수는 의귀리가 281 농가, 남원2리가 150 농가, 한남리가 132농가이다. 조사농가수는 의귀리 59 농가, 남원 2리 55농가, 한남리 19 농가로 총 133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199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이며, 표본의 추출은 임의로 하였다. 계통출하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감귤의 산지유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분명하게 들어낼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는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의 판매나 감귤가격이 폭락했을 때 출하가 편하다라는 답변이 각각 14.3%와 11.3%로 높고, 정확한 가격과 수량과 안정출하는 각 9%, 4.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무응답과 "모르겠다"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계통출하는 가공용 감귤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의 출하에는 도움되지만, 품질이 좋은 감귤을 출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시 장점과 단점

* 문항 : 농협을 통하여 출하할 때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농협을 통하여 출하할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자수(명)	구 성 비(%)
〈장점〉		
가공용 또는 하품 출하시 유리	19	14.3
정확한 가격과 수량	12	9.0
수송에 편리	2	1.5
가격하락시 판매에 유리	15	11.3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다	6	4.5
모르겠다	17	12.8
무응답	62	46.6
〈단점 또는 개선점〉		
현지 경매등 판매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3	2.3
대금결재가 늦고 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없다	45	33.8
정보가 늦다	4	3.0
선과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4	3.0
등급제도 등 유통제도 미흡	18	13.5
기타	8	6.0
모르겠다	3	2.3
무응답	48	36.1

이런 사정은 계통출하의 단점에 대한 의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대금결재가 늦고, 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등급제도 등 유통제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3.5%로, 합쳐서 50%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이는 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용이나 하품의 감귤을 처리하는 창구로서 계통출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감귤유통체계의 가장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작목반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7〉. 특히 가장 좋은 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고 있는 남원·서귀지역의 생산자들이 계통출하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등급체계와 판매대책이 없이는 계통출하를 확대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금결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작목반에 대한 의견

* 문항 : 작목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작목반을 통하여 출하할 때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 입	미 가 입
농가수	71	62
구성비(%)	53.4%	46.6
〈유리한 점〉		
가공용과 낮은 등급의 감귤판매에 유리하다	11(15.5)	
가격이 정확하고 이익이 많다	2(2.8)	
수량이 정확하다	6(8.5)	
과잉생산시 출하가 유리하다	6(8.5)	
기타	4(5.6)	
그저 그렇다(모르겠다)	5(7.0)	
무응답	37.(52.1)	
〈문제점〉		
가격이 불규칙하여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33(46.5)	
운송비 부담이 크다	3(4.2)	
결산이 늦다	2(2.8)	
기타	3(4.2)	
무응답	30(42.3)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이에 반해 상인출하의 경우 장점으로는 우선 시세에 따라 즉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며, 대금결재가 빠르다고 하는 것이 48.8%로 가장 높다〈표 8〉. 감귤의 품질과 그에 따른 가격, 계통출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대금결재가 상인출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의 경우는 자기 책임하에 위험을 부담하고, 시장정보를 빨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농협의 경우는 위험부담을 지지않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출하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정보의 이용상황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표 9〉. 이런 상황이 앞에서 본 계통출하 기피, 상인출하 선호라고 하는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여기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노동력의 부족, 고령화도 판매가 편리한 상인출하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력의 부족, 고령화로 인해 심지어는 전근대적인 판매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밭떼기·창고떼기 방식의 거래방법을 잔존시키고 있다〈표 10〉.

한편, 상인출하에 대한 불만은 가격조작, 지나친 선별과 중량의 과다한 책정, 저품질의 감귤 처리문제 등 전통적인 사항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상인출하가 계속되는 한 이런 생산자들의 불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불만에 덧붙여 계통출하에 대한 불만은 현

재의 유통체계에 대한 개편요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향후 감귤출하계획에 대해서는 86.5%가 여건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계통출하로 전환할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표 11〉.

〈표 8〉 상인출하의 장점 및 단점

*문항 : 상인에게 감귤을 출하하는 이유와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상인에게 출하할 때 문제점 또는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자수(명)	구 성 비(%)
〈이유 또 장점〉		
시세에 따라 즉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며 대금결재가 빠르다	65(35)	48.8(26.3)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49(20)	36.8(15.0)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0(2)	0.0(1.5)
수확 즉시 출하할 수 있다	3(8)	2.3(7.5)
무응답	13(58)	9.8(43.7)
〈문제점 또는 장점〉		
노동력 제공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1	0.8
가격조작, 가격변동 폭이 크다	18	13.5
지나친 선별과 중량을 과대 책정한다	41	30.8
하품처리가 곤란하다	14	10.5
무응답	59	44.4

주) ( )의 수치는 2순위 응답임

〈표 9〉 감귤출하시기의 결정

*문항 : 감귤출하시기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고 있습니까?(순서대로 3개만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1순위	3순위
상인의 정보또는 권유에 의해서	71(53.4)	31(23.3)	10(7.5)
신문, TV 등 메스콤 정보에 의해서	6(4.5)	22(16.5)	22(16.5)
행정기관 또는 농협의 가격정보에 의해서	18(13.5)	17(12.8)	13(9.8)
작목반의 결정에 따라	4(3.0)	10(7.5)	11(8.3)
생산되는 대로	33(24.8)	18(13.5)	6(4.5)
무응답	1(0.8)	35(26.4)	71(53.4)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표 10〉 밭떼기 · 창고떼기 거래를 한 경험과 이유

＊문항 : 감귤을 밭떼기로 거래해 본 적이 있읍니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다	없다
농가수	21	112
구성비(%)	15.8	84.2
〈이유〉		
노동력 부족	18	—
인건비가 비싸다	3	—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1	—
현금화가 빠르고 목돈이 된다	2	—

〈표 11〉 향후의 감귤출하에 대한 의향

＊ 문항 : 앞으로도 계속 상인에게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자수(명)	구 성 비(%)
계속 할 예정이다	14	10.4
여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5	86.5
하지 않을 예정이다	3	2.3
모르겠다	1	0.8
합 계	133	100.0

〈표 12〉 감귤계통출하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

문항 : 현재 감협과 단위농협으로 2원화되어 있는 복잡한 감귤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유통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일원화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합니까?

	일원화 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모르겠다
응답자수(명)	93	9	31
구성비(%)	69.9	6.8	23.3
〈일원화방식〉			
감귤의 일반적인 유통기능을 농협도 지회가 전담하는 방식 단위농협을	14(15.0)	—	—
중심으로 한 일원화 방식	25(26.9)	—	—
감협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 방식	25(26.9)	—	—
단협과 감협의 유통기능 분화 · 분담에 의한 연합체조직방식	29(31.2)	—	—

주) ( )의 수치는 구성비임

그리고 유통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70%가 찬성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협, 농협, 기능분담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으나, 기능분담 쪽이 약간 높다. 즉, 생산자들이 지금의 유통체계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것은 행정당국, 농협, 생산자가 합심하여 어떻게 감귤의 유통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Ⅲ. 柑橘 流通對策에 대한 檢討

1.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안

감귤 유통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안 제출된 것은 UR협상의 최종합의로 한창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하던 '94년 초이다. 제주도의 "柑橘輸入開放對策(案)" (1994年)에는 기반조성을 위한 생산구조 개편정책을 비롯하여 유통구조의 개편, 관련산업의 육성, 수출시장의 확대,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포괄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통정책 부분은 지금까지 다른 계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통구조의 구조적인 개편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상인조직과 농협으로 이원화된 유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계획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농협과 감협의 기능을 조정,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계획생산 및 계획출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유통체계의 개편을 위해 크게 2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하나는 산지의 작목반을 감귤의 생산과 유통의 기초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단위농협과 감귤협동조합의 기능조정을 통해 감귤의 유통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우선 작목반의 육성을 보면 우수 작목반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현재 500여개의 작목반을 300여개로 재편성하고, 이들 작목반을 생산 및 유통의 핵심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작목반의 육성은 단위농협 또는 감협이 담당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 계획에서는 작목반에 대한 지원 정책 이외의 구체적인 육성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감귤의 유통체계의 일원화 대책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원화 계획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제1안의 경우 이원화 된 유통체계를 일원화 하여 시장유통 주도를 목표로 단위농협과 감협을 회원으로 한 연합회 형태의 감귤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특징은 감귤유통상 중복되고 있는 기능을 분담(단위농협 : 산지 유통 전담, 감협 : 소비지 유통 전담)하는 것인데, 비법인 협의회 형태나 20여개의 단위 농협 및 감협의 도연합회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것이다〈그림 1〉.

수급조정협의회의 설치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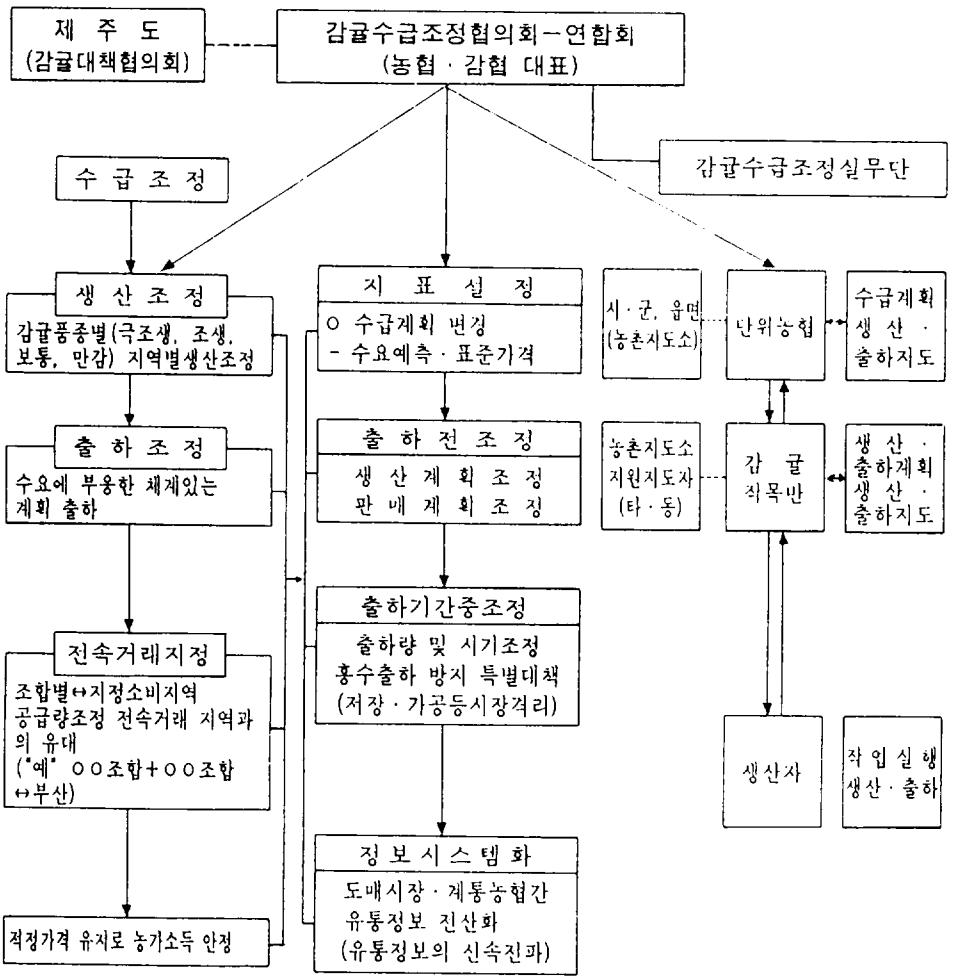
- 구성 : 단위농협(19개 단위농협), 감귤협동조합의 대표로 구성
- 성격 : 제주도농협조합연합회
- 기능
  * 수급계획 협의
  * 생산, 출하조정
    - 개식, 폐원, 간벌, 적과 추진 등 계획생산에 관한 사항
    - 생과 및 가공용 감귤의 계획출하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 방법, 등급설정에 관한 사

항.

* 감귤관련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요확대(수요처 발굴, 판촉,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생산 출하 조정을 위한 미참여농가 각종 지원배제 조치에 관한 사항

- 운영 : 협의제 운영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구체화
- 농협과 감협의 역할 분담
  * 농협 : 산지 유통 전담
  * 감협 : 소비지 유통 전담

〈그림 1〉 제주감귤의 수급조정체계



자료) 柑橘輸入開放對策(案), 濟州道, 1994

이상과 같이 제1안의 경우는 수급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생산과 출하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감협과 농협의 기능을 산지 유통과 소비지 유통으로 분리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제2안의 경우는 전문조합인 감귤협동 조합을 핵심조직으로 하여 감귤의 유통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감협에 단위농협을 회원으로 하는 제주도농협연합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협은 조합별 생산량, 출하량, 출하처 등을 조정 통제하는 등 생산 및 출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획 조정하며, 감귤의 수출입, 포장자재의 공급, 감귤생산자 단체로서의 대·내외적인 대표권의 행사 등 명실상부 감귤의 생산 및 유통의 종합조정 기능을 보유하는 핵심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 조합인 단위농협은 감협의 계획에 따라 생산 및 출하를 담당하는 감협-단위농협이라고 하는 수직체제로 농협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1단계 농협조직의 개편을 기초로 하여 제2단계에서는 일반상인이 담당하고 있는 출하 기능을 농협이 흡수하고, 상인은 도내 농협계통의 공판장을 통하여 출하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현재 상인과 생산자의 직접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포전거래나 창고거래, 정보차단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자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것이 제2단계의 추진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선과시설의 확충, 지역내 경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시설의 건설, 경매사의 확보 및 자질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제2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柑橘輸入開放對策(案)"에 제시되고 있는 감귤유통체계의 개편방향은 상당히 획기적인 개편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대로 유통구조가 개편되기만 해도 감귤의 산지유통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계획생산·계획출하 등 감귤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계획을 추진할 주체가 문제가 된다. 물론 지방 정부는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감협과 단위농협 및 감귤생산자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감협과 단위농협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감협과 단위농협의 계획

"柑橘輸入開放對策(案)"이 발표되고 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감협과 19개의 단위농협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가 발족하였다. 이 협의회는 그 규약을 보면 감귤의 수급조정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생산농민의 소득증대와 감귤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것인데, 어떻든 이는 제주도의 "柑橘輸入開放對策(案)"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통체계의 개편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제1안의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감귤협의회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1994년 6월 3일 시행).

* 감귤생산, 출하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계획 수립
* 감귤유통, 가공시설, 투융자 계획수립
* 감귤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수립(외국산 감귤의 수입 판매 포함)
* 감귤작목반(회) 육성방안수립
* 조합별 업무취급 범위 지정(수출입, 군납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촉활동

*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 감귤생산 및 유통에 따른 자재구입 및 공급방안 수립
* 감귤에 관련되는 영농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감귤직판행사 및 제주감귤축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감귤진흥기금(자조금)의 조정 및 관리
* 감귤관련 농정활동 수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상과 같은 제주감귤협의회의 기능과 규약을 보면 기존의 감협 및 단위농협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의회라는 임의단체(비법인체)를 구성하여 수급조정 등 제업무를 자율형식으로 취해 나간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그동안 농협도지회 등을 중심으로 수행해 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강제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고 단지 회원농협에 선의적 권고를 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게 되어 "柑橘輸入開放對策(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력한 조정판매(즉 수확기의 가격 예측에 따라 언제〈시기조정〉, 어디에〈장소조정〉, 어떤 것을〈품질조정〉, 얼마만큼〈수량조정〉 판매할 것인가 하는)를 목표로 하는 유통체계로의 개편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여기에 조합원인 감귤생산자를 조직하고 생산과 출하를 농협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유통체계의 개편에 반걸음도 채 놓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Ⅳ. 柑橘의 産地流通體系의 再編成 方向

제주의 감귤산업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이 국면에 대한 지방정부 및 농협, 감귤생산자의 선택과 대응에 따라 제주의 감귤산업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감귤유통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유통체계 또는 구조의 개편을 계획할 때 우선 중요한 사고방식은, 유통기능을 산지의 조건과 맞추어 그 기능이 최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통체계가 필요하며, 또 그 기반이 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순서로 계획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히 유통시설에 대한 계획만 앞세우고 유통·시장기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유통의 합리화, 유통체계의 개편을 통한 감귤산업의 발전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가 유통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투자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유통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는 "柑橘輸入開放對策(案)"에 실려 있는 계획이 도상계획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통체계에 대한 계획은 그 계획의 중요성에 비해 실적이 쉽게 나타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물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만 선행될 때는 그 투자가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유통체계의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즉 유통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계획생산·계획출하, 이에 의한 감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확고한 의지, 계획에 의거하여 유통하부구조에 대한 충분한 물적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농협, 감귤생산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이들이 유통체계의 개편에 있어 주역이 될 수 있게 노력할 때 비로소 가

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유통체계 개편의 주역이자 그 대상인 농협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감귤의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은 감귤협동조합과 19개의 지역 단위농협이다. 그리고 이 농협들이 모두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감귤유통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유통체계 일원화의 일환으로 "제주감귤협의회"를 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직은 그 목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격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실지로 협의회가 만들어진 후 한 활동은 '97년까지 한정적인 오렌지 수입권을 확보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그 위에 거의 활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이며 강력한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감협과 단위농협의 기능을 분화·분담시키거나 감협과 농협의 판매사업을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협과 감협의 중복되는 이원화된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여 강력한 수급조정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기업적인 마아케팅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야만 한다[2].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현재 상인조직에 의해 출하되고 있는 감귤을 점차 흡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농협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해야할 것은 감협은 물론 19개의 단위농협이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응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자를 어떻게 계통출하 쪽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감귤의 품질과 가격의 상관성 결여문제의 해결에는 등급제도의 개편과 그 운용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그 상관성 찾아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좀 더 면밀한 등급제도(맛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를 만들어, 고품질의 감귤에는 가산점을 주는 형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농협의 판매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자들은 농협이 단순히 수수료나 챙기고 감귤가격의 변동에는 그다지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나 가공용 감귤과 질 낮은 감귤의 처리 창구로서만 머물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판매담당직원을 전문화 시키고, 이들이 상인 이상으로 예민한 판단력과 대응능력으로 감귤판매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미국, 일본 등 선진지의 농협·농촌을 견학시키고(단순한 견학이나 관광형태가 아니라 모델지역에서 심층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형태의 견학이 필요), 지역별로 연구회를 만들어 각 지역실정에 알맞는 모델을 창출하고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조직으로는 작목반이 적합할 것이다. 즉, 작목반을 유통체계의 기초조직으로 확실히 위치지우고, 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작목반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지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모든 작목반 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역량을 발휘할 때 비로소 유통체계의 개편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귤생산자의 의지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지방정부나 농협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감귤생산자의 유통체계의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 이틀, 일이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나가야 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경영체이다. 이렇게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장조건이다.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시장조건에 맞추어 자신의 경영을 발전시

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姜(1994)을 참조할 것.

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통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합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즉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 곳으로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산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몸이 무거운 농협이나 지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고 유통체계의 개편도 가능해진다.

V. 結

제주의 감귤산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환경 속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감귤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이상 늦어지면 감귤산업은 쇠퇴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귤관련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결국 제주의 감귤산업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阿部健一郎, 1980, 「日本の農業 128 生産組織と集落」 農政調査委員會

玄公南, 1988, 「地域農業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3-濟州地域農業事例-」, 韓國農村經濟研究所 研究報告174.

加藤辰夫, 1981. 「日本の農業 134 生産組織と規模の經濟」, 農政調査委員會.

姜景瑢 外, 1990, 「輸入自由化에 따른 農業構造改善과 農外所得增大方案」, 濟州大學校.

姜景瑢, 1994. 「생산자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제4회 한·일농업과학세미나 UR이후 제주농업 경쟁력제고 방안」, 제주대 농과대학·아열대농업연구소.

李重雄 外, 1987. 「柑橘農家의 經營實態 및 經濟分析」, 韓國農村經濟研究所 研究報告 137.

文斗吉 外, 1991. 「柑橘振興 長期發展計劃樹立」,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若林秀泰 1990. 「農産物マーケティング論」 明文書房.

高橋正郎, 1973. 「日本農業の組織論的研究」 東京大學出版會.

高橋正郎, 1987. 「地域農業の組織革新」 農山漁村文化協會.